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리전략*

Children's Peer Competence : Relationships to Maternal Parenting Goals,
Parenting Behaviors, and Management Strategies

박 주 희**

Park, Juhee

이 은 해***

Rhee, Unhai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patterns of parenting variables in relation to children's peer competence. The subjects were 333 5- and 6-year-old children in early childhood settings. Classroom teachers rated each children's peer competence, and mothers responded to questionnaires on parenting goals, parenting behaviors, and management strategies pertaining to peer relations. Mothers' warm and encouraging behavior, mediation-supervision strategies, and parenting goals for peer competence were positively related to children's peer competence; that is, high warmth and encouragement and mediation-supervision of mothers was strongly associated with children's peer competence. Mothers high in parenting goals for peer competence used more management strategies to enhance peer relations which in turn contributed to children's peer competence.

Key Words : 또래 유능성(peer competence), 양육목표 및 행동(parenting goal and behavior), 관리전략(management strategy)

* 접수 2001년 9월 30일, 채택 2001년 10월 27일

* 본 논문은 2000년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E-mail : parkjij@freechal.com

***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I. 서 론

아동은 수평적인 관계인 또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또래를 사회적 비교의 준거로 삼아 자신을 평가할 뿐 아니라 또래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제공받는다. 이 점에서 또래와 효과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습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초기 또래관계에서 경험하는 문제는 이후의 부적응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Crick, 1996; Parker & Asher, 1993) 또래와 성공적으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능력, 즉 또래 유능성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왕따'라 불리는 또래집단 내의 집단 따돌림이 문제로 떠오르면서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유능하게 기능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모와 교사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또래 유능성 발달에 기여하는 요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은 아동이 경험하는 최초의 사회적 맥락이 가족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아동의 주 상호작용 대상인 어머니의 역할에 관심을 가지고 아동의 또래 유능성과 관계가 있는 자녀양육 변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선행연구들의 구체적인 측정 변인이나 방법에는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온정적, 수용적, 합리적 행동을 비롯한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긍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이나 사회적 유능성과 정적인 관계가 있고 또래관계에서의 문제와는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영·나유미, 1999; 이은혜·박경자·정현숙, 1998; Chen, 1997; Domitrovich, 1998). 반면, 거부적이거나 강압적

인 양육행동은 또래 거부나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Dishion, 1990; MacKinnon-Lewis, Rabiner, & Starnes, 1999)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또래 유능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어머니는 단지 일상적인 양육행동을 통해서만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Ladd와 그의 동료들(Ladd, 1992; Ladd, Le Sieur, & Profilet, 1993)에 따르면, 부모는 아동에게 또래와의 사회적 접촉 기회를 제공해주며,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필요한 기술을 직접 가르치고 또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조언을 해주는 등 다양한 역할을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은 또래관계의 설계자, 중개자, 감독자 또는 상담자로서 부모의 기능은 또래관계를 촉진하고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회화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회화의 내용에 관계없이 부모와 아동간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일상적인 양육행동과는 구분되며(Pettit & Mize, 1993), 통칭하여 아동의 또래관계에 대한 부모의 관리(management)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Ladd, Profilet, & Hart, 1992). 이와 같은 직접적인 또래관계 관리전략을 통한 부모의 지원은 특히 어린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Bhavnagri & Parke, 1991)과 함께, 실제로 또래 상호작용을 지도·감독하는 행동(김희진, 1998), 또래 접촉기회를 제공하는 것(Bullock, 1989; Ladd & Hart, 1992), 또래관계에 대한 조언(Laird, Pettit, Mize, & Lindsey, 1994) 등이 아동의 또래 유능성을 촉진한다는 증거가 제시되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어머니들이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보다

직접적인 방식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고, 다양한 관리전략의 영향이나 효과는 각기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발달적 시기에 가장 효과적인 관리전략이 무엇 인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어머니의 영향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차원은 자녀양육에 관련된 어머니의 인지적 요인이다. 몇몇 연구자들(Goodnow, 1988; Rubin & Mills, 1992)은 부모가 자녀양육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고와 생각, 즉 부모의 인지적 요인은 부모의 행동과 아동의 발달에 직접·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의 행동과 함께 인지적 요인의 중요성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또래 유능성과 관련된 어머니의 인지적 요인을 밝히기 위한 시도가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사회적 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의 신념(김희진, 1998; 송정, 1999; Kennedy, 1992)과 사회적으로 유능한 아동으로 기르고자 하는 부모의 양육목표(Chen, 1997)는 아동의 또래 유능성과 관계가 있는 중요한 인지적 변인으로 일관되게 지적되고 있다.

몇몇 연구자들(McGillicuddy-DeLisis & Sigel, 1995)은 어떠한 구체적인 부모의 행동도 이러한 목표와 가치를 충분히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를 사회화 할 때 지향하는 부모의 목표와 가치는 아동의 유능한 행동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Chen, 1997, 재인용). 반면, Darling과 Steinberg(1993)는 부모가 지향하는 양육목표와 가치가 부모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의 행동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어

머니의 양육목표나 가치와 또래 유능성의 관계는 어머니의 행동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어머니의 영향은 개념적인 의미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어머니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양육행동, 직접적으로 또래관계를 촉진하는 관리전략, 그리고 양육목표와 같은 인지적 요인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구분된 개별적 차원이라기 보다는 자녀양육(parenting)이라는 사회화 과정을 구성하는 상호관련된 구성요소이다(Darling & Steinberg, 1993). 따라서 이들 간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고려가 함께 병행되어야만 어머니의 영향에 대한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이해가 가능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러한 노력은 극소수의 연구(Mize & Pettit, 1997)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Darling과 Steinberg(1993)가 제시한 자녀양육의 통합적 모델은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다양한 양육측면의 상호관련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다. Darling과 Steinberg는 자녀양육을 세 가지 측면, 즉 부모가 사회화 과정에서 지향하는 '양육목표(parental goal)', 특정한 사회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목적 지향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양육실제(parenting practices)', 그리고 사회화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광범위한 상황에서의 부모-아동간 상호작용을 반영해주는 전반적인 양육특성인 '양육방식(parenting style)'으로 구분하였다. 이 모델에 따르면 양육방식과 양육실제는 부분적으로 양육목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

렇지만 특정 영역에 관련된(domain specific) 행동이라 할 수 있는 양육실제는 아동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양육방식은 양육실제의 효율성을 변화시키는 맥락으로 기능함으로써 아동의 발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양육방식은 부모의 직접적인 사회화 노력에 부응하려는 아동의 개방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육실제의 효율성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또래 유능성에 대한 어머니의 영향을 이해하는 데도 적용할 수 있다. 먼저 어머니의 일상적인 양육행동이 또래관계 관리전략의 효과를 중재하는 맥락으로 기능함으로써 또래 유능성에 간접적인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음(Mize & Pettit, 1997)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또래관계 관리전략이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양육행동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또래관계 관리전략이 특정한 사회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Darling과 Steinberg의 모델은 또래 유능성에 대한 양육목표의 효과가 적어도 부분적으로 또래관계 관리전략을 통해 간접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주기도 한다.

만약 이러한 상호관련성을 고려하지 않고 개

별적인 양육차원의 영향만을 검증한다면, 단순히 특정한 양육행동이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거나 혹은 또래관계를 향상시키려는 부모의 노력이 왜 항상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러므로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어머니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육과정의 다양한 측면들에 대한 탐색과 함께 이들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어머니의 일상적인 양육행동, 또래관계 관리전략, 그리고 또래 유능성에 대한 양육목표 간의 상호관련성을 기초로 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어머니의 또래관계 관리전략과 아동의 또래 유능성의 관계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라 달라지는가?
2. 어머니의 양육목표는 또래관계 관리전략을 통해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만 5, 6세 아동 333명과 그들의 어머니 333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표집을 위해 서울시 강남구, 강동구, 노원구, 서대문구, 송파구에 위치한 네 개 유치원과

한 개 어린이집을 임의로 선정하고, 한 기관 당 5, 6세 학급을 1-4학급씩 총 16개 학급 선정하였다. 그리고 선정된 학급의 전체 아동들을 대상으로 또래 유능성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였으며, 마찬가지로 학급 전체 아동의 어머니들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어머니들에게 배부된

질문지는 426부였으며, 이 가운데 373부의 질문지가 회수되어 약 87%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응답내용이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하고, 어머니와 아동의 자료가 모두 수집된 333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 대상 아동과 가족의 특성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대상 아동의 연령 구성은 만 5세 아동이 42.6%, 만 6세 아동이 57.4%였으며, 성별 구성은 남아와 여아가 각각 52.5%와 47.5%였다. 출생순위를 살펴보면 첫째인 아동이 가장 많았으며, 둘째는 약 37%, 셋째는 5.7%를 차지하였다. 또한 부모의 교육수준은 부모 모두 대졸이 60% 이상으로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취업상태는 어머니의 경우 약 75%가 취업하지 않은 전업모였으며, 전일제 취업이 16.5%, 시간제 취업이 9%였다. 아버지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취업을 하고 있었고, 취업하지 않은 아버지는 1.8%였다.

<표 1> 연구 대상 아동과 가족의 특성 (N=333)

변인	구분	아동	변인	구분	어머니	아버지
		빈도(%)			빈도(%)	빈도(%)
연령	만 5세	142(42.6)	교육 수준	중	1(0.3)	0(0.0)
	만 6세	191(57.4)		고	88(26.4)	47(14.1)
성	남	175(52.5)	대학원 이상	대	211(63.4)	218(65.5)
	녀	158(47.5)		대학원 이상	33(9.9)	68(20.4)
출생 순위	첫째	190(57.1)	취업 여부	전일제 취업	55(16.5)	327(98.2)
	둘째	124(37.2)		시간제 취업	30(9.0)	0(0.0)
	셋째	19(5.7)		비 취업	248(74.5)	6(1.8)

2. 연구 도구

1) 아동의 또래 유능성

아동의 또래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박주희·이은혜(2001)가 개발한 또래 유능성 척도

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또래관계에서의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 등에 관한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사로 하여금 대상 아동의 특성을 각 문항 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15점에서 7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또래 관계에서 유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15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92였다.

2)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가 예비 조사를 거쳐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먼저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어머니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별 면접과 기존에 개발된 몇몇 양육행동 측정도구의 문항을 기초로 66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 때 참고한 척도는 김정아(1990)가 번안한 Crase, Clark와 Pease(1978)의 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 (IPBI), 박영애(1995)의 척도, 이숙(1988)의 척도, 이원영(1984)이 번안한 Schaefer, Bell과 Bayley (1959)의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MBRI) 등이었다. 그리고 이 문항들에 대해 311명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예비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고 사각회전을 적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 요인(온정·격려 행동, 한계설정 행동, 거부·방임 행동, 과보호·허용 행동)에 대한 36문항이 추출되어 이 문항들로 연구용 척도를 구성하였다.

이 척도를 본 연구대상에게 실시하여 예비연구와 같은 방식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예비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네 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그러나 온정·격려 행동에 대한 2개 문

항은 요인 부하량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후 요인분석을 재실시하여 4개 요인에 대한 34문항으로 본 연구 척도를 구성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요인의 고유치는 온정·격려가 5.54, 한계설정이 3.56, 과보호·허용이 2.09, 거부·방임이 1.73이었다. 또한 온정·격려는 전체 변량의 16.3%를 설명해주었으며, 한계설정, 과보호·허용, 거부·방임은 각각 추가로 10.5%, 6.1%, 5.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네 요인은 전체 변량의 38%를 설명해주었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온정·격려(11문항)의 경우 11점-55점, 한계설정(8문항)과 거부·방임(8문항)의 경우 8점-40점, 과보호·허용(7문항)의 경우 7점-3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해당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한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 차원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온정·격려가 .83, 한계설정이 .74, 과보호·허용이 .63, 거부·방임이 .69였다.

3) 어머니의 또래관계 관리전략

어머니가 아동의 또래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 자주 하는지 측정하기 위하여 Cohen(1989)의 Parental Involvement Checklist(PIC)를 번안·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어머니가 자녀의 또래관계를 촉진하기 위한 관리행동을 얼마나 자주 행하는지를 측정하는 자기 보고식 질문지이며, 자녀의 또래관계에 관련된 조언, 감독, 관심의 표현 등을 묻는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문항은 본래 의문문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함께 제시되는 척도의 형식

에 맞추어 서술형으로 수정하여 번역하였다.

주성분 분석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들 간의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어 사각회전 방식(Oblimin)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3개 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30 이하로 낮았기 때문에 이 세 문항을 제외한 후 요인분석을 재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개 요인을 추출하였다. 두 요인은 각각 또래와 어울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주거나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상황 혹은 소재를 파악하는 행동인 '중개·감독' 요인(12문항)과,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도록 조언해주고 이야기를 나누며 아동의 또래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현하는 행동인 '조언·관심' 요인(12문항)으로 명명하였다.

중개·감독, 조언·관심 요인의 고유치는 각각 7.64, 3.21이었다. 그리고 중개·감독은 전체 변량의 31.8%를 설명해주었으며, 조언·관심은 추가로 13.4%를 설명하여 두 요인이 전체 변량의 45.2%를 설명하였다.

각 문항은 한 달 동안 자녀의 또래관계를 촉진하기 위한 개입행동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에 대해 '전혀 안 함(1점)'부터 '1주일에 여러 번(6점)'까지 6점 척도에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또래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였음을 의미한다. 하위 요인 별로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를 산출한 결과, 중개·감독과 조언·관심 모두 .88로 나타났다.

4) 또래 유능성에 관한 어머니의 양육목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이 자신의 자녀를 또래관계에서 유능한 아동으로 기르는 것을 어느 정도 중요한 양육목표로 삼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또래 유능성 척도(박주희·이은혜, 2001)의 내용과 Chen(1997)의 질문지를 기초로

본 연구자가 10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제작하였다.

각 문항의 내용은 또래관계에서의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 등에 관한 아동의 특성을 진술한 것(예 : 친구가 많은 아이)이며, 어머니들이 자기 자녀를 그러한 아동으로 기르는 것을 얼마나 중요한 양육목표로 삼고 있는지에 대해 ‘조금 중요하다(1점)’에서 ‘매우 중요하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10점에서 5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들이 자녀를 또래관계에서 유능한 아동으로 기르는 것을 중요한 양육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78이었다.

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조사는 서울시에 위치한 네 개 유치원과 한 개 어린이집의 16개 학급 아동을 대상으로 2000년 1월 25일부터 2월 22일 사이에 실시하였다.

먼저 어머니의 양육행동, 또래관계 관리전략, 그리고 또래 유능성에 대한 양육목표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선정된 학급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아동을 통해 질문지를 전달하고 회수하였다. 그리고 아동의 또래 유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급의 주 교사들에게 평정 척도 실시상의 유의점을 주지시킨 후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래 유능성에 대한 교사 평정은 선정된 학급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어머니용 질문지가 회수된 아동의 자료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7.5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문제 분석에 앞서 변인들에 대한 기술적 통계치와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문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라 또래관계 관리전략과 아동의 또래 유능성의 관계가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양육행동과 또래관계 관리전략의 상호작용 변수(interaction terms)를 포함시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또래관계 관리전략이 어머니의 양육목표와 아동의 또래 유능성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또래관계 관리전략의 영향을 통제하고 어머니의 양육목표와 아동의 또래 유능성 간의 부분상관계수(partial correlation)를 산출하였으며, 이를 관리전략의 효과를 통제하기 전의 적률상관계수와 비교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어머니의 또래관계 관리전략과 아동의 또래 유능성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의 중재효과

어머니가 행하는 또래관계 관리전략과 아동

의 또래 유능성의 관계가 어머니의 일상적인 양육행동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양육행동과 또래관계 관리전략의 상호작용 변수를 포함시킨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

〈표 2〉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적률상관계수

통계치	변인	아동 변인		어머니의 양육행동				또래관계 관리전략		양육 목표
		(1) 연령	(2) 또래 유능성	(3) 온정·격려	(4) 한계설정	(5) 과보호·허용	(6) 거부·방임	(7) 중개·감독	(8) 조언·관심	(9) 양육목표
\bar{X}		5.6	50.8	43.5	28.9	14.0	23.2	40.7	47.8	43.6
SD		0.5	9.4	5.5	4.8	3.6	4.3	12.5	11.7	4.9
r	(1)	1.00								
	(2)	.17**	1.00							
	(3)	.07	.25**	1.00						
	(4)	.15**	.07	.12*	1.00					
	(5)	-.08	-.07	-.03	-.30**	1.00				
	(6)	-.01	-.19**	-.44**	.04	.02	1.00			
	(7)	.10	.26**	.18**	.10	-.04	-.09	1.00		
	(8)	.00	.13*	.27**	.00	.05	-.11*	.42**	1.00	
	(9)	.03	.13*	.17**	.03	-.09	-.09	.20**	.24**	1.00

* $p < .05$ ** $p < .01$

변인들에 대한 기술적 통계치와 변인간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연구문제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아동의 연령이 종속변인인 또래 유능성 점수와 유의한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위계적 회귀분석의 1단계에는 아동의 연령을 투입함으로써 그 영향을 통계적으로 통제하였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어머니 양육행동의 네 하위 차원과 또래관계 관리전략의 두 하위 차원을 투입하여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대한 주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3단계에서는 양육행동과 또래관계 관리전략의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함으로써 주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지를 알아보았다.

상호작용 변인의 선정에 있어서 또래관계 관리전략 중 중개·감독은 또래 유능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포함되었으나, 조언·관심과 양육행동 하위 차원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중개·감독과 양육행동의 네 가지 상호작용 변수들간에 .60 이상의 높은 상관성이 있었으므로 중다공선성을 피

하기 위하여 이 중 주 효과가 있었던 온정·격려만을 선택해 중개·감독과의 상호작용 변수를 만들어 분석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1단계에서 아동의 연령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2단계에 투입된 어머니 양육행동과 또래관계 관리전략의 하위 차원 중에서 각각 온정·격려($\beta = .16$)와 중개·감독($\beta = .21$)이 또래 유능성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온정적이고 격려를 많이 해줄수록, 그리고 어머니가 또래와의 상호작용 기회를 자주 마련해주고 또래와의 상호작용 상황을 파악하는 행동을 많이 할수록 아동의 또래 유능성 점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주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3단계에 투입된 온정·격려와 중개·감독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온정·격려 수준에 따라 중개·감독 전략과 아동의 또래 유능성의 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동의 연령이 가지는 설명량은 3%였고, 양육행동과 또래관계 관리전략의 추가 설명량은 11%였으며, 상호작용 효과의 추가 설명량은 1%로 회귀 방정식에 투입된 변인들은 또래 유능성 점수의 15%를 설명해주었다.

<표 3> 또래 유능성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과 또래관계 관리전략의 상호작용 효과

독립변인	또래 유능성		
	1단계 β	2단계 β	3단계 β
아동의 연령	.17**	.13*	.13*
온정·격려		.16**	-.26
한계설정		-.00	.01
과보호·허용		-.04	-.05
거부·방임		-.10	-.10
중개·감독		.21***	-.83
조언·관심		-.02	-.00
온정·격려 X 중개·감독			1.19*
ΔR^2	.03**	.11***	.01*
전체 R ²		.15	
전체 F		7.20***	

* $p < .05$ ** $p < .01$ *** $p < .001$

한편 온정·격려 수준에 따라 중개·감독 전략과 또래 유능성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Aiken과 West (1991)가 제안한 바와 같이 온정·격려 점수의 총점 분포에 따라 전체를 상·중·하 세 개 집단으로 3등분 후, 각 집단 별로 또래 유능성에 대한 회귀계수(β)를 산출하고 이를 비교하였다. 이 때 점수 분포상 동점인 사례가 있는 경우, 동점인 사례들을 한 집단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집단별 사례 수가 동일하지 않았다. 각 집단의 온정·격려 점수는 상위 집단($n=102$)이 47점 이상, 중간 집단($n=110$)이 42-46점, 하위

집단($n=121$)이 41점 이하였다.

<표 4>과 같이 각 집단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비교한 결과, 온정·격려 점수가 높은 집단과 중간 수준인 집단에서는 어머니의 중개·감독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또래 유능성 점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온정·격려 점수가 낮은 집단에서는 어머니의 중개·감독 전략과 아동의 또래 유능성 간에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상위 집단의 경우 중간 집단보다도 중개·감독 전략과 또래 유능성이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온정적이고 격려를 많이 해줄수록 또래 상호작용 기회를 마련하고 감독하는 중개·감독 전략이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미치지만, 온정·격려의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어머니의 중개·감독 전략이 또래 유능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4> 어머니의 온정·격려 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중개·감독 전략과 또래 유능성의 관계

상관변인	어머니의 중개·감독 전략과 아동의 또래 유능성
온정·격려	
상위집단($n=102$)	$\beta = .44^{**}$
중간집단($n=110$)	$\beta = .19^*$
하위집단($n=121$)	$\beta = .16$

* $p < .05$ ** $p < .01$

2. 어머니의 양육목표와 아동의 또래 유능성의 관계에 대한 또래관계 관리전략의 매개 효과

또래 유능성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목표와 아동의 또래 유능성의 관계가 어머니의 또래관계

관리전략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여 또래관계 관리전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Baron과 Kenny(1986)에 따르면,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간에 상관관이 있어야 하고, 둘째 독립변인이 종속변인과도 상관관이 있어야 하며, 셋째 매개변인과 종속변인도 관계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건이 만족된다면 매개변인을 통제했을 때, 독립변인의 효과가 감소해야하며, 만약 독립변인의 효과가 없어진다면 이는 완전한 매개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먼저 양육목표, 또래관계 관리전략, 또래 유능성 측정치 간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는데, 그 결과 이상의 세 조건이 충족되었다. 구체적으로 양육목표와 중개·감독, 조언·관심 전략 간의 상관관이 각각 .20과 .24($p<.01$)였고, 양육목표와 또래 유능성

간의 상관관이 .13($p<.05$)이었으며, 중개·감독, 조언·관심 전략과 또래 유능성 간의 상관관이 각각 .26($p<.01$)과 .13($p<.05$)이었다.

그리고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또래관계 관리전략을 통제하였을 경우 또래 유능성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목표와 아동의 또래 유능성 간의 관계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또래관계 관리전략이 이들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5> 어머니의 양육목표와 아동의 또래 유능성 간의 적률상관계수와 부분상관계수

양육목표	또래 유능성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목표		
	적률상관계수	부분상관계수	
또래 유능성		중개·감독 통제	조언·관심 통제
또래 유능성	.13*	.08	.10

* $p<.05$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일상적인 양육행동, 또래관계 관리전략, 그리고 또래 유능성에 대한 양육목표 간의 상호관련성을 기초로 하여 자녀양육변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회귀분석 결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하위 차원 중 온정·격려가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가 온정적이고 애정 표현을 잘 하며,

자녀의 자율성을 격려해주고 존중해주는 경우 아동은 또래관계에서 유능한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Putallaz와 Heflin(1990)의 주장과 같이 부모가 아동에게 온정적으로 행동하고 자율성을 격려해주는 것은 아동의 자신감과 안정감을 강화시킴으로써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Dékovic과 Janssens(1992)가 주장한 바와 같이 온정적이고 지지적인 부모들은 또래관계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상호작용 행동의 모델

이 되어줌으로써 아동으로 하여금 또래관계에 잘 준비하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인 것으로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기본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역으로 아동의 특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변인간 관계의 방향성에 대한 해석은 어느 정도 잠정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어머니가 사용하는 또래관계 관리전략 중 중개·감독 전략이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가 또래와의 상호작용 기회를 빈번히 마련해주고 또래와의 상호작용 상황을 간접적으로 감독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유능한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같은 결과는 부모가 또래와의 상호작용 기회를 자주 마련해주는 것이 아동의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Bullock, 1989; Ladd & Hart, 1992)와 일치하는 것이다. 즉 또래와의 놀이 기회를 많이 경험한 아동은 또래관계에 대해 자신감과 흥미를 가지게 되고, 또래관계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기술들을 습득하여 그 결과 또래와의 관계에서 성공적으로 기능할 수 있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양육행동의 중재효과를 검증한 결과, 어머니가 아동의 또래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행하는 중개·감독 전략이 또래 유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이 같은 긍정적 영향은 평상시에 어머니가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온정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어머니가 온정적일수록 중개·감독 전략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아동과 상호작용 할 때 보다 온정적이고 수용적일수록 아동의 또래관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중개·감독 전략의 효과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 연구결과는 전반적인 양육방식에 따라 구체적인 영역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행하는 양육전략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Darling과 Steinberg(1993)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Darling과 Steinberg에 따르면 아동에게 수용적이고 온정적이며 아동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양육방식은 부모의 사회화 노력에 부응하려는 아동의 개방성을 증진시키고 또 아동으로 하여금 부모의 노력에 반응함으로써 부모를 기쁘게 해주려는 욕구를 가지도록 한다. 따라서 온정적이며 격려를 많이 해주는 어머니의 아동은 또래관계를 촉진하고자 하는 어머니의 가치를 수용하고 그러한 노력에 부응할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결과 또래관계 관리전략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동일한 또래관계 관리전략이라 하더라도 어머니들이 그것을 수행하는 방식은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이를 양육행동과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머니들은 또래접촉 기회를 마련할 때 아동이 누구와 어디서 얼마나 오랫동안 놀 수 있는지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다른 어머니들은 누구와 함께 놀고 싶은지 생각해보도록 하거나 또래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함으로써 아동과 함께 또래접촉 기회를 계획하기도 한다(Ladd et al., 1992). 이러한 차이를 양육행동과 연결시켜 본다면, 온정적이고 아동의 자율성을 격려하는 어머니들일수록 후자의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짐작해볼 수 있다. 그런데 Engfer와 Godde(1991)에 따르면 아동의 욕구나 불안감을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 접촉을 권장할 경우, 긍정적인 영

향을 기대할 수 없는 반면(Schneider, 1993, 재인용) 후자의 유형과 같이 아동의 욕구를 고려하는 경우 또래관계에 대한 책임감과 자율성, 그리고 숙달감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또래접촉 기회는 아동의 또래관계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Ladd & Hart, 1992). 즉 양육행동의 온정적 특성은 또래관계 관리전략을 수행하는 방식과 관계가 있을 것이고, 이 때문에 어머니가 온정적이고 격려를 많이 해줄수록 공개·감독 전략의 효과가 컸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적인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온정적 양육행동을 관리전략의 수행방식과 결부시켜 본다면, 어머니들이 아동의 또래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전략을 수행해야 할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즉 본 연구 결과는 또래 유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또래와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해주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항상 효과적인 것은 아니어서 그 효과를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욕구를 존중하고 아동의 자율성을 격려하는 방식으로 이를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또래관계 관리전략이 어머니의 양육목표와 아동의 또래 유능성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알아본 결과, 어머니가 자녀를 또래관계에서 유능한 아동으로 양육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는 정도와 또래 유능성간의 관계가 또래관계 관리전략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또래 유능성을 중요한 양육목표로 삼을수록 아동의 또래관계를 촉진하기 위한 관리전략을 자주 수행하게 되고 이것이 다시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부모가 사회적으로 유능한 행동의 획득을 중요하게 여길수록 아동이 그러한 행동 특성을 더 많이 보이며,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부모의 양육목표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또래관계 개입행동에 의해 매개된다는 선행연구 결과(Chen, 1997)와 일치하는 것이다. 특히 또래 유능성과 양육목표 간의 상관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본다면 양육목표와 같은 인지적 요인만으로는 아동의 또래 유능성을 촉진시키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인지적 요인이 또래 유능성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될 때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아동의 또래 유능성과 보다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가정되어온 또래관계 관리전략의 근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으로서, 어머니들에게 또래 유능성의 중요성을 인식시킴으로써 이를 중요한 양육목표로 삼게 하고 이를 통해 어머니들로 하여금 보다 능동적으로 또래관계 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아동의 또래 유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또래관계 관리전략이 또래 유능성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목표와 아동의 또래 유능성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또래 유능성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목표가 또래관계 관리전략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또래 유능성의 변량에 독립적인 기여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또래관계 관리전략에 의해 매개되지 않는 부분이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또 다른 유형의

관리전략을 통해 매개될 가능성을 충분히 탐색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기에 앞서 연구의 제한점을 지적해보면, 본 연구의 결과는 상관관계에 기초한 것이므로 인과관계의 방향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과 본 연구 대상 아동이 대부분 중류층 이상의 정상 집단 아동들로 편중된 경향이 있어서 결과의 일반화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자녀양육(parenting)의 차원을 세분화하여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어머니의 영향을 다각적으로 고려하고자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러한 영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시도함으로써 양육과정이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할 때 부딪히게 되는 모호함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단편적으로 이

루어졌던 선행연구 결과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어머니의 일상적인 양육행동, 또래관계 관리전략, 그리고 양육목표와 같은 자녀양육의 다양한 측면은 아동의 또래 유능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양육측면은 독립적으로, 그리고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기여한다. 따라서 취학 전 아동의 또래 유능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자녀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온정적이어야 하며, 또래 유능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또래접촉 기회를 자주 제공해주는 등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관리하되 아동의 욕구를 존중하고 자율성을 격려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김정아 (1990).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제 변인에 관한 연구 - 어머니와 교사의 평가를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희진 (1998). 어머니의 인지, 어머니의 지도/감독행동, 그리고 유아의 또래간 유능성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1), 43-53.
- 박영애 (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주희 · 이은혜 (2001). 취학 전 아동용 또래 유능성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 221-232.
- 송정 (1999). 자녀의 또래 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인지, 개입 행동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숙 (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 · 나유미 (1999). 유아의 애착 및 어머니-유아 상호작용과 또래 상호작용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0(3), 19-32.
- 이원영 (1984). 어머니의 자녀양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혜 · 박경자 · 정현숙 (1998).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보육시설 및 가족변인의 효과. 대한가정학회지, 36(6), 27-40.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 Park, CA : Sage.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havnagri, N., & Parke, R. D. (1991). Parents as direct facilitators of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 Effect of age of child and sex of parent. *Journal of Personal and Social relationships, 8*, 541-549.
- Bullock, J. R. (1989).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management of peer interaction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 263-269.
- Chen, J. (1997). *Parental goals, parenting practices and Chinese preschoolers' socially competent behaviors in Taiw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Cohen, J. S. (1989). *Maternal involvement in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during middle childhoo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terloo.
- Crick, N. R. (1996). The role of overt aggression, relational agg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 in the prediction of children's future soci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2317-2327.
- Darling, N., & Steinberg, L. (1993). Parenting style as context : An integrative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3*, 487-496.
- Dékovic, M., & Janssens, J. M. A. M. (1992). Parents' child-rearing style and child's sociometric statu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925-932.
- Dishion, T. J. (1990). The family ecology of boys' peer relations in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1*, 874-892.
- Domitrovich, C. E. (1998).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 social adjustment : The mediating role of child perceptions of parents and pe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Goodnow, J. J. (1988). Parents' ideas, actions and feelings : Models and methods from developmental and social psychology. *Child Development, 59*, 286-320.
- Goodnow, J. J., & Collins, W. A. (1990). *Development according to parents : The nature, sources and consequences of parents' ideas*.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Kennedy, J. H. (1992). Relationship of maternal beliefs and childrearing strategies to social competence in preschool children. *Child Study Journal, 22*, 39-60.
- Ladd, G. W. (1992). Themes and theories : Perspectives on processes in family-peer relationships. In R. D. Parke & G. W. Ladd (Eds.), *Family-peer relationships : Modes of linkage*(pp. 3-34).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Ladd, G. W., & Hart, C. H. (1992). Creating informal play opportunities : Are parents' and preschoolers' initiations related to children's competence with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1179-1187.
- Ladd, G. W., Le Sieur, K. D., & Profilet, S. M. (1993). Direct parental influences on young children's peer relations. In S. Duck (Ed.), *Learning about relationships : Understanding relationship processes series vol. 2*(pp. 152-183). Newbury Park, CA : Sage.
- Ladd, G. W., Profilet, S. M., & Hart, C. H. (1992). Parents' management of children's peer relations : Facilitating and supervising children's activities in the peer culture. In R. D. Parke & G. W. Ladd (Eds.), *Family-peer relationships : Modes of linkage*(pp. 215-253).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Laird, R. D., Pettit, G. S., Mize, J., & Lindsey, E. (1994). Mother-child conversations about peers : Contributions to competence. *Family Relations*,

- 43, 425-432.
- MacKinnon-Lewis, C., Rabiner, D., & Starnes, R. (1999). Predicting boys' social acceptance and aggression : The role of mother-child interactions and boys' beliefs about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35*, 632-639.
- Mize, J., & Pettit, G. S. (1997). Mother's social coaching, mother-child relationship style, and children's peer competence : Is the medium the message?. *Child Development, 68*, 312-332.
- Parker, J. G.,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 Link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611-621.
- Pettit, G. S., & Mize, J. (1993). Substance and style : Understanding the ways in which parents teach children about social relationships. In S. Duck (Ed.), *Learning about relationships : Understanding relationship processes series vol. 2*(pp. 118-151). Newbury Park, CA : Sage.
- Putallaz, M., & Heflin, A. H. (1990). Parent-child interaction.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pp. 189-216).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ubin, K. H., & Mills, R. S. L. (1992). Parents' thoughts about children's socially adaptive and maladaptive behaviors : Stability, change,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I. E. Sigel, A. V. McGillicuddy-DeLisi, & J. J. Goodnow (Eds.), *Parental belief systems :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2nd ed., pp. 47-69).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chneider, B. H. (1993). *Children's social competence in context : The contributions of family, school and culture*. New York : Pergamon Press.